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감사의 글

한 번의 휴학과 더불어 때늦은 졸업으로 남들보다 길었던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니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동안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게 해 주신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저에게 항상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짧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정소우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민들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친절한 가르침과 애정 어린 조언을 베풀어 주셨던 지도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논문 심사과정을 통하여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 인한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심사위원 신명신 교수님과 고정민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학기동안의 수업에서 맺은 인연을 잊지 않으시고 실험 분석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신 교육학과 노석준 교수님과, 영작문을 꼼꼼히 살펴봐주신 Dan Harmon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수님의 은혜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실험 데이터 작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도움을 주신 이종수 선생님과 김재욱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평가문항지에 기꺼이 응해주신 약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항상 말없이 지지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하나뿐인 동생 우성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작은 열매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믿음과 기쁨을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007년 11월
이 우 연 올림

논문개요

지금까지 영어 구절동사는 관용어 또는 속어(idioms)라는 이름하에 그 구성성분의 의미가 전체 의미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습자들은 수많은 구절동사를 한 낱말의 다른 동사를 위우듯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해 왔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구절동사의 학습에 흥미를 잃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Langacker(1983)의 인지문법이 도입되면서 구절동사의 의미가 그 구성성분인 동사와 불변화사의 개별적인 의미에 의해 반영되어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문법적인 관점에서 구절동사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습자의 학년별에 따른 구절동사의 인지 정도와 학습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구절동사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인지문법 및 구절동사에 대한 내용과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 서울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습자 324명을 대상으로 평가지를 투입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절동사에 대한 학습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평가지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고 그에 따른 몇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학습자들에게 투입한 평가지를 통하여 이끌어 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절동사의 개념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학습자들이 약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절동사의 형태적인 특징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셋째, 구절동사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한 문항에 대하여 불변화사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동사만으로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단일동사와 구절동사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구절동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효율적인 구절동사 지도방안을 4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교사는 구절동사를 지도하는 데 있어 학년을 불문하고 이해 정도가 낮게 나타난 구절동사의 기본적인 개념 및 동사와 불변화사의 분리 가능성과 같은 형태적인 특징을 보다 강조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구절동사는 숙어이므로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는 식의 지도가 아니라 인지문법적 관점에서 구절동사의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셋째, 교실환경에서 접하는 교과서만으로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실제로 구절동사가 많이 쓰이는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로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구절동사의 표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2.1 인지문법	4
2.1.1 언어 의미론	5
2.1.2 은유와 환유	6
2.1.2.1 은유	7
2.1.2.2 환유	9
2.2 구절동사	12
2.2.1 구절동사의 정의	12
2.2.2 구절동사 학습의 어려움	14
2.2.3 구절동사의 특징	16
2.3 선행연구	18
III. 연구의 실제	22
3.1 연구가설	22

3.2 연구대상 및 대상 분석	23
3.3 평가지 제작 및 분석방법	27
3.4 평가지 분석 및 논의	28
IV. 결론 및 제언	78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1학년 학습자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평가지 점수 비교	24
표 2. 2학년 학습자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평가지 점수 비교	25
표 3. 3학년 학습자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평가지 점수 비교	26
표 4. 평가문항에 포함된 구절동사의 추출 분포도	27
표 5. 평가지 전체 문항에 대한 정답률 분석 결과	28
표 6. 1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31
표 7. 2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32
표 8. 3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34
표 9. 4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36
표 10. 5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37
표 11. 구절동사 개념과약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분석 결과	39
표 12. 객관식 문항에 대한 교차분석 - 케이스 처리 요약	40
표 13. 객관식 문항에 대한 학년별 빈도표	41
표 14. 객관식 문항에 대한 성별 빈도표	42
표 15. 6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43
표 16. 6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43
표 17. 8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45
표 18. 8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45
표 19. 9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47
표 20. 9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47

표 21. 7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49
표 22. 7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49
표 23. 10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51
표 24. 10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51
표 25. 11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52
표 26. 11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53
표 27. 12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55
표 28. 13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57
표 29. 14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59
표 30. 16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63
표 31. 구절동사 의미과약에 관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분석 결과	64
표 32. 17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66
표 33. 17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66
표 34. 18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67
표 35. 18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67
표 36. 19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68
표 37. 19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69
표 38. 20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70
표 39. 20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70
표 40. 구절동사와 단일동사의 선호도에 관한 문항 분석 결과	72
표 41. 구절동사의 추출 자료에 따른 학년별 정답률 분석 결과	74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영어를 학습하면서 「동사 + 전치사(부사)」로 이루어진 구절동사¹⁾를 많이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find out이나 give up, put up with와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에게는 일상 대화체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예를 들면 하나로 된 낱말인 investigate, discover, perform보다는 각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look into, find out, carry out과 같이 두 낱말로 결합한 동사를 보다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구절동사는 지금까지 관용어 또는 속어(idioms)라는 이름하에 그 구성성분의 의미가 전체 의미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습자들은 수많은 구절동사를 한 낱말의 다른 동사를 외우듯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방식은 장기적인 기억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의 구절동사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환경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에 많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비효율적인 학습방식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구절동사의 자연스러운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의 경우, 구절동사의 학습에 있어서 여러

1) 「동사 + 전치사(부사)」의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는 관용동사, 복합동사, 다어동사 등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owie and Mackin(1975)과 Courtney(1983)의 사전 정의에 따라 '구절동사(phrasal verb)'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구절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고 그것과 같은 의미의 단일동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이미 발표되었다(You, 1999). 즉 구절동사의 비유적인 의미파악이나 구절동사와 동사구의 구별 등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영어 원어민들처럼 구절동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절동사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동사의 뜻과 더불어 전치사(부사), 즉 불변화사(particle)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Langacker(1983)의 인지문법이 도입된 이후로 낱말의 다의성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불변화사마저도 체계적인 의미의 상호 관련성이 밝혀지게 되었다(Lakoff, 1987: 이기동, 1988). 즉, 다른 낱말처럼 하나의 불변화사가 갖고 있는 여러 의미들은 원형의미로부터 주변의미로의 확장을 통한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Lindner, 1983). 이러한 결과들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여러 가지 의미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의미들 사이에 관련성을 찾게 되면 외우기도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구절동사의 의미도 그 구성성분의 의미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Fraser, 1976: Sroka, 1972: 이기동, 1997, 2000). 다시 말하면 구절동사의 원형의미는 그 구성성분인 동사의 원형의미와 불변화사의 원형의미로부터 도출이 가능하며, 구절동사의 확장의미는 은유나 환유를 통한 동사의 확장의미나 불변화사의 확장의미로부터 도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인지문법의 배경과 구절동사의 개념을 알아보고, 구절동

사의 다양한 특징별로 평가문항을 제작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학년별에 따른 구절동사의 인지 정도와 학습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각 학년에 따른 구절동사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제한점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구절동사 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평가지 투여시 학습자에게 평가 문항 자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평가 대상은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180명, 2학년 학습자 69명, 3학년 학습자 75명을 합하여 총 324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의 전체 인원수뿐만 아니라 특히 학년별 집단 간 인원수의 상대적인 차이로 인한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인지문법과 구절동사의 개념 및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2.1 인지문법

인지문법은 Langacker가 지난 1976년부터 발전시켜 온 언어이론으로서 최근 언어학계에 제시된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법이론으로, 공간문법(space grammar)이라고도 불리며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적 전통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기동, 1997). 생성문법에서는 문법을 ‘낱말의 집합(=사전)+ 규칙’으로 보고 심상, 인지 처리과정, 신경학적인 토대 등을 문법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인지문법에서는 언어를 인간 인지의 통합적인 일부로 간주한다. 즉 어휘부, 형태부, 통사부는 상징 단위의 연속 변차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인위적으로만 별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문법 단위를 분석하는 것은, 낱말의 뜻을 빼놓고 사전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기동, 2004). 이러한 인지문법의 출현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관련된 몇 가지 기본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 언어 의미론

인지문법에서는 언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명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Langacker, 1988).

첫째, 의미는 개념화 또는 심리적 경험과 연결되어 표현된다.

둘째, 자주 쓰이는 표현은 서로 관련된 의미의 망을 가지게 된다.

셋째, 의미구조는 인지영역과 관련되어 특징지어진다.

넷째, 의미구조는 바탕(base)에 모습(profile)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끌어낸다.

다섯째, 의미구조는 관습적인 영상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구절동사의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배경이론으로서의 인지문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여기에서는 위에 언급한 5가지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첫째와 둘째의 개념만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인지문법에서는 언어를 개념화 또는 심리적 경험과 연결시킨다. 여기서 개념화라는 용어는 넓은 범위에 적용가능한 말로, 이 속에는 고정된 개념은 물론 새로운 개념화, 감각, 운동, 정서적 경험, 그리고 직접적인 맥락의 인식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화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일과 사물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인지문법은 객관세계의 사물과의 일대일 대응관계로 의미를 찾아내려는 객관주의적인 의미관을 취하지 않고, 외부세계에 대하여 우리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의미라는 것을 생

각한다.

둘째, 어휘 의미론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낱말은 서로 연관된 뜻들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다의어가 지니는 여러 의미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원형적 의미를 중심으로 범주화 관계에 의하여 확대된 의미의 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범주화라는 용어는 어떤 현상의 공통되는 점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 ‘새’라는 낱말을 예로 들어보자. 새의 종류에는 참새, 독수리, 두루미, 기러기, 까치 등 매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를 통틀어서 ‘새’라는 낱말로 범주화한다. 이렇듯 하나의 낱말로 범주화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은 모두 깃털이 있고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하늘을 날 수 있는 등의 새의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상규, 2000). 또 다른 예로 ‘ring’이라는 낱말을 살펴보자. 이것은 원형적 의미로 손가락에 끼는 반지를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둥근 실체, 둥근 표지, 둥근 물체, 경기장, 둥근 장식품, 코걸이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기동, 2004). 즉 대상을 범주화시키는 인간의 능력에 의하여 원형적 의미로부터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을 범주화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능력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은유와 환유를 살펴보자.

2.1.2 은유와 환유

구절동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 구절동사의 의미가 직설적인 것보다 은유적인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구절동사의 의미가 구성성분으로부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비유적인 뜻을 은

유와 환유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2.1.2.1 은유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전통적인 정의로는 ‘은유’란 두 가지 사물이나 개념 사이에 유사성이 성립할 때 한쪽 형식으로 다른 한쪽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는 사자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은 ‘그’와 ‘사자’ 사이에 성립하는 ‘용감함’이라는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은유관에서 은유는 일상 언어의 용법에서 일탈한 비일상적·시적인 표현이며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Richards(1936)와 Black(1954-55)에서 인식과 관련하여 은유를 다시 파악하고 재조명하였다. 또한 이들의 은유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은유 연구의 효시로 불리는 Lakoff와 Johnson(1981)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Lakoff와 Johnson은 「Metaphors We Live By (1981)」에서 은유는 단지 문학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말, 행동에 보편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한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유의 본질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념영역을 다른 개념영역을 가지고 이해하는 우리의 인지작용에 있다.

둘째, 우리 개념체계의 많은 부분이 은유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언어 표현으로서의 은유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은유는 단순한 수사나 시적 표현이 아니라 널리 일상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논쟁은 전쟁이다(ARGUMENT IS WAR)’ 은유를 살펴보면, 논쟁은 전쟁의 개념으로 구조가 주어지고 이해되고 행동되고 또 이야기되어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논쟁’이라는 개념영역을 ‘전쟁’이라는 개념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이해가 ‘논쟁’ 개념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 (1) a. My claims are indefensible.
- b. She attacked every weak point in my argument.
- c. They demolished our argument.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논쟁은 전쟁이다’와 같은 개념을 구성하는 은유가 ‘주장을 막다, 주장을 공격하다, 주장을 무너뜨리다, 논쟁에 이기다/지다’ 등의 은유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논쟁의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논쟁에 지면 분하게 생각하는 등 논쟁할 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Lakoff와 Johnson은 은유가 우리의 특정한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좋은 위이다’라는 은유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 a. She rose *high* in her profession.
- b. She felt *high* on the success of her book.
- c. He is in *high* spirits.

예문 (2)에서는 형용사 *high*를 사용하여 ‘좋은’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뜻을 표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low*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 (3) a. Our stocks of food are getting *low*.
- b. The dish is *low*.
- c. She is in *low* spirits.

위의 예문 (2)와 (3)에 나타난 은유는 모두 우리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쁘거나 즐거우면 깡충깡충 뛰고 반대의 경우에는 털썩 주저앉거나 드리눅게 된다. 사람이 잘 때에는 눕고 깨면 일어선다. 따라서 사람의 의식은 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표현은 영어 구절동사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표현이므로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은유는 언어만이 아닌 일상의 사고와 행동에 관련된 것이므로 인지문법에서는 은유를 중요한 의미 확장의 수단으로 삼는다. 다음으로 환유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1.2.2 환유

Lakoff와 Johnson은 「Metaphors We Live By (1981)」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환유를 설명하고 있다.

- (4) a. *Inflation* robbed me of my savings.
- b. The *ham sandwich* is waiting for his check.

위의 예문 (4a)에서 ‘Inflation’이라는 말은 실제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문 (4b)에서 ‘ham sandwich’라는 표현은 어떤 실제의 사람, 즉 그 햄 샌드위치를 주문했던 사람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햄 샌드위치에 사람의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햄 샌드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인화 은유라고 할 수는 없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개체와 관련되는 다른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서 그 개체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환유란 한 낱말을 써서 이 낱말이 가리키는 개체를 가리키지 않고 이 개체와 관련된 다른 개체를 가리키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손’은 사람 신체의 한 부분을 가리키거나, ‘손’과 관련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듯 부분이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a. ‘blood’ person with a certain type of blood
- b. ‘face’ person with a certain face

위의 표현들과 달리 환유에는 전체가 부분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지시되는 개체의 특정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도 있다. Lakoff와 Johnson(1981)은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6) a. THE PART FOR THE WHOLE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함)
 The Giants need a *stronger arm* in the right field.
- b. PRODUCER FOR PRODUCT

(생산자로 생산품을 대신함)

She's got a *Picasso* in her den.

c. OBJECT USED FOR USER

(사용되는 물건으로 사용자를 대신함)

The *gun* he hired wanted sixty grand.

d. CONTROLLER FOR CONTROLLED

(통제자로 피통제자를 대신함)

Nixon bombed Hanoi.

e. INSTITUTION FOR PEOPLE RESPONSIBLE

(기관으로 책임자를 대신함)

I don't approve of the *government's* actions.

f. THE PLACE FOR THE INSTITUTION

(장소로 기관을 대신함)

The *White House* isn't saying anything.

g. THE PLACE FOR THE EVENT

(장소로 사건을 대신함)

Watergate changed our politics.

위의 문장들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조직하는 관점이 되는 어떤 일반적인 환유적 개념의 실례들이다. 이러한 환유적 개념은 우리에게 한 사물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갖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물을 개념화하도록 해 준다. 따라서 환유적 개념은 은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하며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와 태도, 행동까지도 구조화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은유와 환유는 인지문법에서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주요수단으로 여겨진다. 구절동사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경우에 그 뜻이 비유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비유적인 뜻은 앞서 살펴본 은유와 환유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며, 또한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생겨난다. 따라서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동사를 지도할 때 그러한 언어 표현에 우리의 인지와 사고, 행동, 경험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학습자에게 주지시킨다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의 과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인지문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구절동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2 구절동사

2.2.1 구절동사의 정의

영어의 구절동사는 크게 동사와 첨사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문법적 설명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 명칭이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김자영, 2006)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이론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구절동사 사전으로 등장한 Cowie and Mackin(1975)의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²⁾와 그 뒤를 잇는 Courtney(1983)의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에 실린 구절동사의 정의 및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Cowie and Mackin의 구절동사 사전은 1975년에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며 그 이후 1993년에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Oxford Dictionary of Phrasal Verbs'라는 제목으로 수정 출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Oxford Dictionary of Phrasal Verbs(1993)'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과거에 구절동사 사전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사전에서 구절동사가 매우 빈약하게 취급되어 동사를 다룬 후 맨 뒤에 구절동사를 열거하여 간단하게 풀이를 달아주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구절동사의 중요성³⁾이 점차 인식되면서 여러 가지의 구절동사 사전이 출간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사전이 본격적인 구절동사 사전으로 분류된다. 이 사전에서는 구절동사만을 다루고 각 구절동사에 주어지는 정보가 풍부하며 많은 예문이 제시된다.

먼저 Oxford Dictionary of Phrasal Verbs(1993)에서는 구절동사를 동사와 불변화사로 이루어진 짧은 구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The vocabulary of English is full of short phrases consisting of a verb and a ‘particle’ such as up, down, through, and across.”

또한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1983)에서는 구절동사를 동사와 부사 혹은 동사와 전치사의 관용적인 결합이라고 하였다.

“Phrasal verbs are idiomatic combinations of a verb and adverb or a verb and preposition (or verb with both adverb and preposition).”

3) 구절동사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왔다 (원자희, 2003: 재인용).

"The growth in the number of such compounds attributes to analytic tendencies within English, that is, the loss of inflection and the increased dependence on word order and function." (Barber, 1964)

"Verb idioms are very useful, and very commonly used in English, because various verbs join with different particles or prepositions to form unique combination of meaning." (Feare, 1980)

"Phrasal verbs are such an important part of colloquial English that no use can speak or understand conversational or informal English easily without a knowledge of them."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1983)

위에서 Courtney(1983)가 언급한 구절동사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7) a. verb + adverb :

The old lady was taken in (=deceived) by the salesman.

b. verb + preposition :

She set about (=started) making a new dress.

c. verb + adverb + preposition :

I can't put up with (=bear or suffer) him - he's always complaining.

따라서 위의 정의에 따라 [동사 + 불변화사]로 구성되는 구절동사의 기본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2.2 구절동사 학습의 어려움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사전에서는 구절동사의 간단한 정의와 함께 구절동사는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하여 각 사전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Oxford Dictionary of Phrasal Verbs(1993)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3가지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lthough phrasal verbs may appear simple, combinations such as break down, make up and take out represent one of the most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s for students of the language. There are three major areas of difficulty; grammar, idiomatic or non-idiomatic, complex idioms.”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구절동사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서 첫째, 같은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배열이 다양한 문법 구조, 즉 각기 다른 문장 형태로 사용된다는 점과 둘째, 구절동사 형태로 보이는 단어의 배열이 하나의 의미단위로 쓰였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make one’s mind up’에서처럼 ‘make up’에 부가어가 붙어서 전체 구절이 하나의 복잡한 관용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1983)에서는 구절동사 학습의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Phrasal verbs cause problems for the student not only because of their meaning, which cannot always be guessed from the meaning of the verb, but also because of their grammar. Sometimes the parts of the phrasal verbs can be separated.”

여기에서는 구절동사 학습이 어려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그것의 의미와 문법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이는 내용면에서 볼 때 앞서 살펴 보았던 Cowie and Mackin(1993)의 설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학습자들로 하여금 구절동사의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절동사의 어떤 점

들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 구절동사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2.2.3 구절동사의 특징

구절동사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구절동사는 일반적인 동사와 같이 자동사와 타동사가 존재하며 어떤 구절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타동사적인 구절동사는 수동태로 변형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8)과 수동태로 쓰인 용법(9)을 살펴보자.

- (8) a. The soldiers *blew up* the enemy bridge. (transitive)
- b. A chemical factory *blew up* in the North of England.
 (intransitive)
- (9) The traffic *eased off* around seven o'clock.

둘째, 구절동사가 타동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 불변화사의 위치는 직접목적어의 앞·뒤로 자유롭다. 그러나 직접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와 분리되어 직접목적어의 뒤에 위치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구절동사 *blow up*을 예로 들어보자.

- (10) a. The soldiers *blew up* the bridge.
- b. The soldiers *blew* the bridge *up*.

c. *The soldiers *blew up* it.

d. The soldiers *blew* it *up*.

위의 예문 (10a)와 (10b)에서는 불변화사 *up*의 위치가 명사구인 직접목적어의 앞·뒤로 자유롭지만, (10c)와 (10d)에서처럼 목적어가 대명사로 쓰인 경우에는 동사와 불변화사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10c)는 비문이고 (10d)는 정문이 된다.

마지막으로, 구절동사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의미뿐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혹은 관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예로 구절동사 *hold up*을 살펴보자.

(11) a. *Hold up* your right hand and repeat these words after me.

b. The criminals *held up* the train and stole all the passengers' money.

위의 예문 (11a)에 쓰인 *hold up*은 각각의 의미로부터 일반적인 의미(normal meaning)를 추론해낼 수 있다. 반면에 예문 (11b)에서는 구성성분으로부터 의미를 추론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관용적인 의미(idiomatic meaning)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hold up*은 일반적인 의미와 관용적인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며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1983)에 실린 정의를 통하여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hold up

1. to raise (something): *Hold up* your right hand and repeat these words after me.
2. to stop (a vehicle) by force in order to rob it: The criminals *held up* the train and stole all the passengers' money.

위에 나타난 두 번째 정의와 같이 구성성분의 의미만으로 구절동사 전체의 의미를 추론해내기 어려운 경우에 학습자들은 이것을 무조건 관용적 표현으로 여기고 암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절동사의 의미가 단순히 관용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의 망을 통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구절동사의 의미를 무조건 숙어로서 암기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2.3 선행 연구

지금까지 구절동사의 정의와 일반적으로 구절동사 학습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았고, 그것의 특징으로 동사적 성격과 불변화사의 위치 변화, 그리고 의미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구절동사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구절동사의 특징 및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먼저 Dagut와 Laufer(1985)는 영어를 학습하는 Hebrew어 사용자들이 보이는 회피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제1언어가 제2언어의 학습 과정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구절동사를 회피하고 단일동사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모국어인 Hebrew어에는 구절동사와 같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L1과 L2 사이의 차이로 인한 회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구절동사라도 의미적으로 분명하게 추론해낼 수 있는 구절동사가 그렇지 않은 구절동사보다 더 선호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You(1999)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보이는 구절동사의 회피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어에는 구절동사와 같은 어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언어 간 구조적인 차이와 비유적인 뜻을 담고 있는 구절동사의 경우 의미도출이 어려운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면서 이로 인해 구절동사 대신에 단일동사를 사용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개의 선행 연구는 공통적으로 L1과 L2 사이의 차이로 인한 구절동사의 회피 현상에 대하여 다루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의 구절동사 이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이은진(2002)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들의 영어 구절동사 이해와 교사의 지도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절동사에 대한 평가지를 통하여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조사 분석하고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구절동사 지도 실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이 둘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절동사의 전체 특징에 대한 교사의 지도 정도를 살펴보면 의미에 관한 지도 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형태에 관한 지도, 화용적 특징에 관한 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학습자의 이해 정도와 교사의 지도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구절동사의 형태에 있어 교사는 일반적인 동사구와 구절동사를

구분하는 항목에 중요성을 두고 지도하지만 학습자는 특별히 해당항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이지 않고 다른 항목들과 유사한 이해도를 보였다. 또한 교사는 각 구성성분의 의미로부터 전체 구절동사의 의미를 추론해내는 항목에 중요성을 두고 지도하지만 학습자는 오히려 그보다 관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동사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따라서 교사의 지도 없이도 학습자 스스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지도보다는 학습자의 이해 정도가 낮은 항목에 대하여 좀 더 중점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 집단을 영어 능숙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성취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구절동사의 이해와 영어 능숙도 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즉 영어 능숙도 상위 집단의 이해 정도가 하위 집단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자영(2006)은 우리나라 중학교 2, 3학년 학습자들의 구절동사 이해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구절동사의 유형과 빈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제작하여 구절동사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절동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학년을 제외하고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 구절동사의 이해도에 있어서 3학년이 2학년보다 문항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구절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학습이 구절동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였다. 즉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구절동사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구절동사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두 개의 선행 연구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 집단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이은진(2002)의 연구에서 동일한 학년의 학습자들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성적에 따른 구절동사의 이해 정도를 분석한 것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므로 연구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에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선행 연구는 단일동사와 구절동사 사이의 선호도 및 회피 현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내용과 매우 관련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절동사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자료 분석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실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 학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구절동사의 다양한 특징을 묻는 평가지를 투입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하여 학년별에 따른 영어 구절동사의 인식 및 이해 정도와 학습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구절동사의 다양한 특징에 관한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지를 투입하기 전에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Dagut와 Laufer(1985)의 연구와 You(1999)의 연구에서는 영어를 ESL또는 EFL로 배우는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구절동사를 회피하고 단일동사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2개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첫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영어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한국어에 없는 구절동사에 대하여 회피 현상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의 구절동사 이해도와 중등학교 교사의

구절동사 지도실태에 관해 조사한 이은진(2002)의 연구와 중학교 2, 3학년 학습자의 구절동사 이해도에 관해 조사한 김자영(2006)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에서는 각각 영어 능숙도 상위 집단의 구절동사 이해도가 하위 집단보다 높았고, 고학년 학습자의 구절동사 이해도가 저학년 학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2개의 선행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상황에 맞도록 두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2 :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각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구절동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투입되는 평가지의 결과에 있어서도 저학년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년 학습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두 가지의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학습자들의 영어 구절동사 학습실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3.2 연구대상 및 대상 분석

본 연구의 핵심을 구성하는 평가지의 투입 대상은 서울시 고등학교 1학년 5개 학급 180명, 2학년 2개 학급 69명, 3학년 2개 학급 75명을 합하여 총 324명으로 선정·배포하였고 그 중 실제로 회수한 평가지의 수는 1학년 166명(92.2%), 2학년 59명(85.5%), 3학년 73명(97.3%)을 합하여 총 29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지의 전체 문항 또는 과반수이상의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26명(1학년 23명, 2학년 3명, 3학년 없음)의 평

가지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성의 있게 평가지에 응답한 272명의 자료를 실질적인 분석대상으로 한다.

평가지의 투입 및 회수에 걸린 기간은 2007년 4월 한 달간이며, 실질적인 분석대상으로 추출한 평가지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들의 평소 영어 실력과 본 연구를 위하여 투입한 평가지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지를 투입하기 직전에 치른 2007년 3월 14일자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외국어영역 점수와 본 평가지의 점수를 학급별로 비교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각 학년별·학급별 전국연합학력평가 외국어 영역의 점수와 평가지의 점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1학년 학습자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평가지 점수 비교

	외국어영역 학급별 평균점수	평가지 학급별 평균점수
A반	57.7	60.0
B반	49.9	39.0
C반	52.4	40.0
D반	50.4	51.3
E반	61.1	58.2
5개 학급평균	54.3	49.7
학교평균	55.5	-
전국평균	51.1	-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외국어영역 점수와 본 연구를 위하여 투입한 평가지의 점수를 학급별로 비교해보면, 비교적 하위 성적 집단에 속하는 B반과 C

반의 경우 대략 10점의 오차를 보이는 반면 상위 성적 집단에 속하는 A, D, E반의 경우 약간의 오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의 흡사한 점수대를 보이고 있다.

위의 표에서 외국어영역 학급별 평균점수란의 하단에 보이는 5개 학급평균은 A반~E반까지의 평균점수를 나타내며 그 아래의 학교평균은 A반~E반만의 평균점수가 아니라, 본 연구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학급을 모두 포함한 1학년 전체의 학교평균을 나타낸다. 또한 그 아래에 보이는 전국평균은 본 연구대상에 선정된 학교의 성적수준이 전국의 학교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첨가하였다. 또한 표의 오른쪽에 위치한 평가지 학급별 평균점수란의 하단에 보이는 5개 학급평균은 본 연구대상에 선정된 5개 학급인 A반~E반의 평가지 평균점수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볼 때 5개 학급의 평균점수에 있어 외국어영역의 평균점수와 본 평가지의 평균점수 사이에 대략 5점 정도의 오차가 있기는 하나, 각 학급별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하위 집단의 점수가 일제히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2학년 학습자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평가지 점수 비교

	외국어영역 학급별 평균점수	평가지 학급별 평균점수
A반	45.5	55.9
B반	46.5	43.8
2개 학급평균	46.0	49.9
학교평균	44.2	-
전국평균	42.1	-

2학년 A반의 경우 외국어영역 평균점수에 비하여 평가지의 평균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B반의 경우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2개 학급의 평균점수에 있어 대략 4점의 차이를 보이므로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3] 3학년 학습자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평가지 점수 비교

	외국어영역 학급별 평균점수	평가지 학급별 평균점수
A반	56.7	51.8
B반	57.8	57.7
2개 학급평균	57.3	54.8
학교평균	53.1	-
전국평균	47.6	-

3학년의 경우 평가지의 회수율(97.3%) 및 응답률(100%)에 있어서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만큼 표에 나타난 수치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어영역 학급별 평균점수와 평가지 학급별 평균점수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학습자들의 평소 영어 실력과 본 평가지의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일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학년별로 본 평가지의 투입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외국어영역 점수와 평가지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소수의 하위 집단을 제외하고 전체 학년에 있어 대략 $\pm 3\sim 5$ 점의 오차를 보이며 둘 사이의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3.3 평가지 제작 및 분석방법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구절동사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지의 문항 형식은 선행연구인 김자영(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구절동사에 관련된 여러 교재에 빈번하게 사용된 구절동사를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평가지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절동사의 개념파악의 여부를 묻는 단답식 5문항, 형태적 특성을 묻는 객관식 6문항, 의미적 특성을 묻는 주관식 5문항, 구절동사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는 객관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지에 포함된 구절동사의 수는 총 17개로, 이는 중복하여 등장하는 3개의 구절동사를 제외한 숫자이다. (*부록참조)

평가지의 투입이 각 학년의 초기에 해당하는 4월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한 구절동사의 문항이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친 교과서에 나타나는 구절동사를 각각 동일한 비율로 추출하였으며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평가문항에 포함된 구절동사의 추출 분포도

	중학교 전 학년	고등학교		기타 (구절동사 관련서적)
		1학년	2학년	
문항에 등장하는 구절동사의 예	get on, get up, give up, look forward to, look up, turn on, walk up	escape from, read out, show up, take off	call back, put off, send out	call up, drink up, look over
총 비율	41.2%	41.2%		17.6%

* 각 학년별로 중복되어 등장하는 구절동사의 경우 최초로 등장한 학년에 표시하였다.

* 기타는 교과서를 제외한 구절동사 관련서적을 의미한다.

이 평가문항지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답식 및 주관식을 합한 총 10문항에 있어서는 학년별에 따른 다양한 응답 유형을 표로 작성하여 살펴보고, 객관식 총 10문항에 있어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응답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문항에 포함된 구절동사의 추출에 따른 학년별 정답률을 살펴봄으로써 특정 구절동사의 학습시기와 인지여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제 평가지의 문항별로 각 문항의 응답률과 정답률 및 다양한 응답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3.4 평가지 분석 및 논의

고등학교 전체 학년의 학습자들에게 구절동사에 관하여 묻는 평가를 투입하고 회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여기에서는 평가지의 전체 문항에 대한 학년별 정답률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의 정답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구절동사와 단일동사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17번~20번의 4문항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이것을 제외한 16문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5] 평가지 전체 문항에 대한 정답률 분석 결과

평가항목	문항 번호	빈도(정답률%)			전체빈도 (정답률%)
		1학년	2학년	3학년	
구절동사의 개념파악	1	110(76.9)	38(76.0)	45(63.4)	193(76.9)
	2	112(78.9)	43(86.0)	52(72.2)	207(82.5)
	3	23(18.1)	11(22.0)	6(8.5)	40(17.0)
	4	105(75.0)	37(77.1)	48(67.6)	190(77.2)
	5	58(43.0)	21(43.8)	27(37.5)	106(43.8)

명사 목적어의 위치	6	17(11.9)	11(19.6)	21(28.8)	49(18.0)
	8	20(14.3)	6(10.7)	20(27.8)	46(17.2)
	9	14(9.9)	3(5.6)	20(27.4)	37(13.8)
대명사 목적어의 위치	7	95(66.4)	35(62.5)	51(70.8)	181(66.8)
부사구의 삽입 가능여부	10	88(62.4)	33(62.3)	35(48.6)	156(58.6)
구절동사의 굴절	11	135(94.4)	49(94.2)	67(91.8)	251(93.7)
구절동사의 의미파악	12	24(26.4)	11(30.6)	9(18.8)	44(17.6)
	13	43(38.1)	16(42.1)	38(59.4)	97(38.8)
	14	52(52.0)	9(27.3)	36(63.2)	97(38.8)
	15	104(95.4)	37(88.1)	59(95.2)	200(80.0)
	16	35(42.7)	13(43.3)	33(62.3)	81(32.4)

위의 표에 나타난 정답률 분석 결과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한다. 우선 구절동사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첫 5개의 문항에서 3번 문항의 정답률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의 정답률이 나머지 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번 문항의 경우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등장함으로써 전체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타동사적 용법의 구절동사가 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취할 경우에 목적어의 위치에 대하여 묻는 6, 8, 9번 문항의 정답률은 전체 문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년별로 살펴보면 이 항목에서는 3학년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문항에서는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구절동사의 구성성분인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 형태만이 문법적으로 맞는 구조라고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낮은 이해 수

준을 보인 동사와 불변화사의 분리 가능성에 대하여 교사의 중점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구절동사가 대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취할 경우에 목적어의 위치에 대하여 묻는 7번 문항의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66.8%의 학습자들이 이 항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사구의 삽입에 대한 문항에서는 나머지 학년에 비하여 3학년의 정답률이 훨씬 낮게 나타났고, 구절동사의 굴절현상에 대한 문항은 전 학년에 걸쳐 전체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마지막 유형으로 구절동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5개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숙어로 간주하고 암기했던 관용적 의미의 구절동사에 대한 정답률만이 높게 나타났을 뿐, 나머지 4개의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미처 절반을 넘지 못하였다. 또한 학년별로는 문항에 따라 정답률의 우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략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별 응답률과 오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은 구절동사 자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절동사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밑줄을 치도록 하였다. 1번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의 밑줄 친 부분은 정답을 의미한다.)

1. What time did you show up?

이 문항에 관한 학습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바른 구절동사 부분에 밑줄 친 응답자 수는 1학년 학습자의 경우 110명, 2학년 학습자

의 경우 38명, 3학년 학습자의 경우 4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문항의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이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 수는 각 학년별로 1학년 15명, 2학년 4명, 3학년 2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답을 선택한 응답자 수를 무응답자를 제외한 순수 응답자 수에 비례한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1학년 76.9%, 2학년 76.0%, 3학년 63.4%로 1학년과 2학년은 거의 차이가 없이 나타난 반면 의외로 3학년 학습자의 경우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정답 이외의 오답을 적은 응답자들의 다양한 응답 유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6] 1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did	11	5	11	27
show	10	-	10	20
up	2	3	2	7
did, show	1	2	1	4
time	1	1	1	3
you	2	-	-	2
you show up	2	-	-	2
did you show up	1	1	-	2
time, up	1	-	-	1
did you	-	-	1	1
time did you	1	-	-	1
did you show	1	-	-	1
무응답자	15	4	2	21

* 표에 나타난 숫자는 응답자의 수를 의미하고, 마지막 줄의 무응답자는 평가지의 다른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였으나 본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의 수를 의미한다. 이들 무응답자의 반응은 문항별 점수계산에서는 0점 처리하였다.

위의 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답 유형은 ‘did, show, up’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구절동사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조동사 또는 일반 동사에 체크한 것으로 생각되며 did와 show를 한꺼번에 체크한 응답자도 4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동사와 대명사의 결합, 일반 명사 등 다양한 유형의 응답을 보였는데 특히 1학년 학습자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여러 형태의 오답을 체크하였고 아예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의 비율도 타 학년에 비해 가장 높다. 다음으로 2번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2. He called up his mother.

위의 문장에서 올바른 구절동사에 밑줄 친 응답자 수는 1학년 학습자의 경우 112명, 2학년 학습자의 경우 43명, 3학년 학습자의 경우 52명이며, 이 문항에 대한 무응답자 수는 1학년 16명, 2학년 4명, 3학년 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학년별 응답자 수에 비례한 정답률로 환산해 보면 1학년 78.9%, 2학년 86.0%, 3학년 72.2%로 2학년 학습자의 이해정도가 가장 높고 3학년 학습자의 이해정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답 이외의 다양한 응답 유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7] 2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called	23	4	18	45
up	2	2	2	6
his mother	2	-	-	2
his	1	-	-	1
up his	-	1	-	1
up his mother	1	-	-	1
called up his mother	1	-	-	1
무응답자	16	4	1	21

위의 표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오답 유형은 ‘called’이며 1번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절동사의 개념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동사라고 판단하여 체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다양한 오답유형과 무응답자 수의 비율에 있어 1학년이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3번 문항은 구절동사에 밀줄 치는 유형의 문항들 중에서 전체 학년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드러낸 문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Boys and girls often desire to escape from their parents.

위의 문항은 앞서 다루었던 2개의 문항에 비해 문장의 길이가 다소 길고 한 문장 안에 동사의 품사를 지닌 2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년의 학습자들에 있어서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올바른 구절동사에 밀줄 친 응답자의 수는 1학년 학습자의 경우 23명, 2학년 학습자의 경우 11명, 3학년 학습자의 경우 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각 학년별 응답자 수에 비례한 정답률로 환산해 보면 1학년 18.1%, 2학년 22.0%, 3학년 8.5%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 수는 1학년 31명, 2학년 4명, 3학년 2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각 학년별로 아무런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학년 간 연계성과는 상관없이 전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3학년 학습자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한다. 또한 위 문항에서 정답 이외의 응답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8] 3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desire to	31	16	22	69
desire	20	9	23	52
desire, from	14	-	-	14
escape	5	1	8	14
to escape	6	3	2	11
often desire	3	3	3	9
often	4	-	2	6
from	2	2	2	6
desire to escape	3	1	1	5
desire to, from	2	2	-	4
to escape from	1	1	1	3
girls	1	1	1	3
often desire to escape	2	-	-	2
desire to escape from	2	-	-	2
parents	2	-	-	2
to escape from their parents	2	-	-	2
often, to	1	-	-	1
often desire to	1	-	-	1
boys and girls	1	-	-	1
구절동사 없음	1	-	-	1
무응답자	31	4	2	3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년에서 고른 분포로 정답보다도 더 높은 응답을 보인 유형은 ‘desire to’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구절동사의 개념과 이를 이루고 있는 구성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desire+ to

부정사'로 이루어지는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구절동사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유형은 'desire'이며 이것 또한 구절동사의 개념을 알지 못함으로 야기된 일반 동사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desire+from, escape, to escape' 등의 순으로 일반 동사에 관련된 오답을 체크한 경향이 있다. 또한 이 문항에서도 1학년 학습자들의 오답 유형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추측하건대 정답을 알지 못해 아예 응답하지 않은 경우의 수도 가장 많았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1학년 학습자의 응답 중에서 '구절동사 없음, 동사: desire'라는 유형이 있는데, 고심한 끝에 결국 정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일반 동사인 'desire'는 있지만 구절동사가 없다고 추론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4번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They sent out an invitation to us.

위 문항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올바른 구절동사를 선택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자 수는 1학년 학습자의 경우 105명, 2학년 학습자의 경우 37명, 3학년 학습자의 경우 48명이며, 이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 수는 1학년 18명, 2학년 6명, 3학년 2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1학년 75.0%, 2학년 77.1%, 3학년 67.6%로 1학년과 2학년 학습자의 이해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나며 3학년 학습자의 이해정도가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문항은 앞서 살펴 본 3번 문항과 같이 비교적 많은 유형의 응답을 보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4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sent	10	4	18	32
invitation	7	-	-	7
invitation to	1	2	3	6
out	2	2	1	5
an invitation	1	2	-	3
to us	2	1	-	3
invitation to us	2	-	-	2
sent out an invitation	2	-	-	2
sent out, invitation to	2	-	-	2
an	1	-	-	1
us	-	-	1	1
an invitation to	1	-	-	1
an invitation to us	1	-	-	1
sent out, to us	1	-	-	1
sent out an invitation to us	1	-	-	1
they	1	-	-	1
무응답자	18	6	2	2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동사인 ‘sent’에 체크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invitation, invitation to, out’ 등이 그 뒤를 따른다. 이 문항 역시 1학년 학습자들의 오답 유형이 가장 다양하고 무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번 문항은 구절동사를 가려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5개의 문항 중 마지막 문항으로 위의 4개의 문항과는 달리 다소 짧은

명령문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절동사의 형태적 성격에 따라 명사 목적어가 나올 경우에는 동사와 불변화사를 분리하여 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다. 이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Take your hat off.

위 문항에 대한 학년별 학습자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1학년 학습자의 경우 58명(43.0%), 2학년 학습자의 경우 21명(43.8%), 3학년 학습자의 경우 27명(37.5%)으로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는 1학년 23명, 2학년 6명, 3학년 1명이며, 특히 이 문항은 문장의 길이가 매우 짧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오답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0] 5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hat off	38	16	8	62
take	20	4	24	48
off	11	3	6	20
hat	4	1	5	10
your	1	1	1	3
take your	2	-	-	2
your hat off	1	-	1	2
your, off	-	1	-	1
your hat	-	1	-	1
무응답자	23	6	1	30

위의 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유형은 ‘hat off’인데 이는 많은 학습자들이 동사와 불변화사의 분리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off’가 불변화사임을 확신하고 그 바로 앞에 위치한 ‘hat’과 연결하여 구절동사라고 체크하였거나 또는 ‘hat’을 동사라 생각하고 불변화사인 ‘off’와 연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your’가 소유격 형용사이므로 ‘hat’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전자보다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인 유형은 일반 동사인 ‘take’이다. 이것은 이전의 문항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절동사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여 단순히 동사에 응답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off, hat’ 등의 유형이 뒤를 따른다. 또한 오답 유형의 분석에 있어 5개의 문항 전체에서 1학년 학습자들의 오답 유형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아예 응답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의 구절동사에 대한 지식수준과 더불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학습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개념파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5개 문항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학년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구절동사 개념과악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분석 결과

문항번호	분석항목	학년			문항별
		1	2	3	
1번	빈도	110	38	45	193
	학년별 %	76.9	76.0	63.4	72.1
2번	빈도	112	43	52	207
	학년별 %	78.9	86.0	72.2	79.0
3번	빈도	23	11	6	40
	학년별 %	18.1	22.0	8.5	16.2
4번	빈도	105	37	48	190
	학년별 %	75.0	77.1	67.6	73.2
5번	빈도	58	21	27	106
	학년별 %	43.0	43.8	37.5	41.4
전체	학년별 평균%	58.4	61.0	49.8	-

* 표에 나타난 빈도는 정답을 표기한 학습자들의 수를 의미하고 학년별 %는 학년별 정답률, 음영부분은 5개 문항 전체에 대한 학년별 평균 정답률을 의미한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나머지 문항들에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에 비해 3번과 5번의 정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3번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또 다른 일반 동사의 존재와, 더불어 정답에 해당하는 동사의 어휘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친숙한 또 다른 동사로 이끌린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낮은 5번 문항은 동사와 불변화사의 분리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문항에서 많은 학습자들을 오답으로 이끈 주요인은 구절동사 자체의 이해도 부족과 어휘 자체의 난이도가 주는 어려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구절동사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문맥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동사의 다양한 어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표의 마지막 줄에 나타난 평균%는 구절동사의 개념을 묻는 5개 전체 문항에 대한 각 학년별 평균 정답률을 의미하는데, 1학년보다 2학년의 그것이 약간 더 높고 반면에 3학년의 평균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지식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맞지 않는 결과로서 평가지의 전체 문항을 다룬 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구절동사의 형태적 특성을 묻는 6번~11번과 구절동사와 단일동사 사이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17번~20번의 문항은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 이들 10개의 문항에 한해 각각의 응답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에 인코딩한 후, 각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빈도를 분석하였다. 객관식 문항에 해당하는 총 10문항의 응답 자료를 학년, 학급, 성별로 나누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았다. 이들 전체 문항에 대한 유효값과 결측값을 포함한 전체 사례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12] 객관식 문항에 대한 교차분석 - 케이스 처리 요약

	케이스					
	유효		결측		전체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6번*학년	272	100.0%	0	.0%	272	100.0%
6번*성별	272	100.0%	0	.0%	272	100.0%
7번*학년	271	99.6%	1	.4%	272	100.0%
7번*성별	271	99.6%	1	.4%	272	100.0%
8번*학년	268	98.5%	4	1.5%	272	100.0%
8번*성별	268	98.5%	4	1.5%	272	100.0%

9번*학년	269	98.9%	3	1.1%	272	100.0%
9번*성별	269	98.9%	3	1.1%	272	100.0%
10번*학년	266	97.8%	6	2.2%	272	100.0%
10번*성별	266	97.8%	6	2.2%	272	100.0%
11번*학년	268	98.5%	4	1.5%	272	100.0%
11번*성별	268	98.5%	4	1.5%	272	100.0%
17번*학년	254	93.4%	18	6.6%	272	100.0%
17번*성별	254	93.4%	18	6.6%	272	100.0%
18번*학년	257	94.5%	15	5.5%	272	100.0%
18번*성별	257	94.5%	15	5.5%	272	100.0%
19번*학년	255	93.8%	17	6.3%	272	100.0%
19번*성별	255	93.8%	17	6.3%	272	100.0%
20번*학년	242	89.0%	30	11.0%	272	100.0%
20번*성별	242	89.0%	30	11.0%	272	100.0%

총 10문항에 해당하는 유효값과 결측값을 전체적으로 볼 때 후반부로 갈수록 결측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측값을 고려하여 각 문항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위의 표에 나타난 값을 학년별 및 성별로 분리한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학년별 집단의 크기가 비교적 상이하나 성별 집단의 크기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3] 객관식 문항에 대한 학년별 빈도표

학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	143	52.6	52.6
2	56	20.6	73.2
3	73	26.8	100.0
합계	272	100.0	-

[표14] 객관식 문항에 대한 성별 빈도표

성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	137	50.4	50.4
여	135	49.6	100.0
합계	272	100.0	-

여기에서는 형태적 특성을 묻는 6번~11번 문항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구절동사와 단일동사 사이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17~20번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문항의 내용면에서 볼 때 6번부터 9번까지는 구절동사의 목적어가 명사일 때와 대명사일 때의 위치 이동가능성에 대하여 묻는 문항들이다. 구체적으로 6번, 8번, 9번 문항은 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취하는 구절동사가 포함된 문장이고, 7번 문항은 대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취하는 구절동사가 포함된 문장이다. 목적어의 형태에 따른 결과를 대조분석하기 위하여 6번, 8번, 9번 문항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7번 문항을 살펴보겠다. 먼저 6번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자.

6. 나는 컴퓨터를 켜다.

⇒ I turned _____.

① the computer on ② on the computer ③ 모두 가능함

위 문항에서 구절동사가 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취할 때 목적어는 구절동사의 동사와 불변화사 사이에 위치하거나 또는 불변화사 뒤에 위치하는 것이 둘 다 가능하므로 정답은 ‘③ 모두 가능함’이다. 이에 대한 응답 자료를 학년별 및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15] 6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학년			전체
			1	2	3	
6번	1	빈도	20	3	8	31
		답안별 %	64.5%	9.7%	25.8%	100.0%
		학년별 %	14.0%	5.4%	11.0%	11.4%
		전체 %	7.4%	1.1%	2.9%	11.4%
	2	빈도	106	42	44	192
		답안별 %	55.2%	21.9%	22.9%	100.0%
		학년별 %	74.1%	75.0%	60.3%	70.6%
		전체 %	39.0%	15.4%	16.2%	70.6%
	3	빈도	17	11	21	49
		답안별 %	34.7%	22.4%	42.9%	100.0%
		학년별 %	11.9%	19.6%	28.8%	18.0%
		전체 %	6.3%	4.0%	7.7%	18.0%
전체	빈도	143	56	73	272	
	답안별 %	52.6%	20.6%	26.8%	100.0%	
	학년별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2.6%	20.6%	26.8%	100.0%	

* 표의 음영부분은 정답을 의미한다.

[표16] 6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성별		전체
			남	여	
6번	1	빈도	17	14	31
		답안별 %	54.8%	45.2%	100.0%
		성별 %	12.4%	10.4%	11.4%
		전체 %	6.3%	5.1%	11.4%
	2	빈도	93	99	192
		답안별 %	48.4%	51.6%	100.0%
		성별 %	67.9%	73.3%	70.6%
		전체 %	34.2%	36.4%	70.6%
	3	빈도	27	22	49
		답안별 %	55.1%	44.9%	100.0%
		성별 %	19.7%	16.3%	18.0%
		전체 %	9.9%	8.1%	18.0%
전체	빈도	137	135	272	
	답안별 %	50.4%	49.6%	100.0%	
	성별 %	100.0%	100.0%	100.0%	
	전체 %	50.4%	49.6%	100.0%	

첫 번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답을 선택한 학습자의 수는 1학년 17명(11.9%), 2학년 11명(19.6%), 3학년 21명(28.8%)으로 전체 18.0%의 매우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①번 31명(11.4%), ②번 192명(70.6%), ③번 49명(18.0%)으로 다수의 학습자들은 정답 외에 ②번 보기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문맥상으로 볼 때 ①번과 ②번의 보기가 모두 가능한 형태이지만, 여기에서는 구절동사의 특징상 가능한 형태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③번 보기만을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②번 보기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학년을 불문하고 다수의 학습자들은 구절동사를 이루고 있는 동사와 불변화사의 분리 형태보다는 결합 형태를 안정적으로 여기며 명사 목적어에 따른 구절동사의 분리 가능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정답을 선택한 남학생의 수는 27명(19.7%), 여학생의 수는 22명(16.3%)으로 3.4%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언급하도록 한다.

이어서 8번과 9번 문항 역시 구절동사가 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이다. 다음은 8번 문항의 내용과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이다.

8. 그들은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았다.

⇒ They looked _____ in a dictionary.

① up the word ② the word up ③ 모두 가능함

[표17] 8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학년			전체
			1	2	3	
8번	1	빈도	91	43	43	177
		답안별 %	51.4%	24.3%	24.3%	100.0%
		학년별 %	65.0%	76.8%	59.7%	66.0%
		전체 %	34.0%	16.0%	16.0%	66.0%
	2	빈도	29	7	9	45
		답안별 %	64.4%	15.6%	20.0%	100.0%
		학년별 %	20.7%	12.5%	12.5%	16.8%
		전체 %	10.8%	2.6%	3.4%	16.8%
	3	빈도	20	6	20	46
		답안별 %	43.5%	13.0%	43.5%	100.0%
		학년별 %	14.3%	10.7%	27.8%	17.2%
		전체 %	7.5%	2.2%	7.5%	17.2%
전체		빈도	140	56	72	268
		답안별 %	52.2%	20.9%	26.9%	100.0%
		학년별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2.2%	20.9%	26.9%	100.0%

[표18] 8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성별		전체
			남	여	
8번	1	빈도	88	89	177
		답안별 %	49.7%	50.3%	100.0%
		성별 %	64.7%	67.4%	66.0%
		전체 %	32.8%	33.2%	66.0%
	2	빈도	21	24	45
		답안별 %	46.7%	53.3%	100.0%
		성별 %	15.4%	18.2%	16.8%
		전체 %	7.8%	9.0%	16.8%
	3	빈도	27	19	46
		답안별 %	58.7%	41.3%	100.0%
		성별 %	19.9%	14.4%	17.2%
		전체 %	10.1%	7.1%	17.2%
전체		빈도	136	132	268
		답안별 %	50.7%	49.3%	100.0%
		성별 %	100.0%	100.0%	100.0%
		전체 %	50.7%	49.3%	100.0%

위 문항에서 정답을 선택한 학습자의 수는 1학년 20명(14.3%), 2학년 6명(10.7%), 3학년 20명(27.8%)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던 같은 유형의 6번 문항과 비교해 볼 때 2학년 학습자의 경우 정답률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학년의 경우는 유사한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①번 177명(66.0%), ②번 45명(16.8%), ③번 46명(17.2%)으로 다수의 학습자들은 정답 외에 ①번 보기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6번 문항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답지와 똑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6번 문항에서 다수의 학습자들이 ②번 보기를 선택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학년을 불문하고 다수의 학습자들이 구절동사 구성요소의 비분리 형태인 ①번 보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 또한 문법적으로 가능한 형태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형태인 ②번 보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학습자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구절동사 구성요소의 결합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정답률을 살펴보면 남학생 27명(19.9%), 여학생 19명(14.4%)으로 남학생의 정답률이 5.5%만큼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일한 유형의 9번 문항을 살펴보자. 문항의 내용과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p>9. 그들은 거리를 걸었다. ⇒ They walked _____. ① up the street ② the street up ③ 모두 가능함</p>
--

[표19] 9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학년			전체
			1	2	3	
9번	1	빈도	99	34	42	175
		답안별 %	56.6%	19.4%	24.0%	100.0%
		학년별 %	69.7%	63.0%	57.5%	65.1%
		전체 %	36.8%	12.6%	15.6%	65.1%
	2	빈도	29	17	11	57
		답안별 %	50.9%	29.8%	19.3%	100.0%
		학년별 %	20.4%	31.5%	15.1%	21.2%
		전체 %	10.8%	6.3%	4.1%	21.2%
	3	빈도	14	3	20	37
		답안별 %	37.8%	8.1%	54.1%	100.0%
		학년별 %	9.9%	5.6%	27.4%	13.8%
		전체 %	5.2%	1.1%	7.4%	13.8%
전체		빈도	142	54	73	269
		답안별 %	52.8%	20.1%	27.1%	100.0%
		학년별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2.8%	20.1%	27.1%	100.0%

[표20] 9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성별		전체
			남	여	
9번	1	빈도	80	95	175
		답안별 %	45.7%	54.3%	100.0%
		성별 %	59.3%	70.9%	65.1%
		전체 %	29.7%	35.3%	65.1%
	2	빈도	33	24	57
		답안별 %	57.9%	42.1%	100.0%
		성별 %	24.4%	17.9%	21.2%
		전체 %	12.3%	8.9%	21.2%
	3	빈도	22	15	37
		답안별 %	59.5%	40.5%	100.0%
		성별 %	16.3%	11.2%	13.8%
		전체 %	8.2%	5.6%	13.8%
전체		빈도	135	134	269
		답안별 %	50.2%	49.8%	100.0%
		성별 %	100.0%	100.0%	100.0%
		전체 %	50.2%	49.8%	100.0%

위 문항에서 명사 형태의 목적어의 위치가 불변화사의 앞·뒤로 모두 가능함을 선택한 학습자의 수는 1학년 14명(9.9%), 2학년 3명(5.6%), 3학년 20명(27.4%)으로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8번 문항과 비교해 볼 때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의 정답률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반면,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각각 4.4%, 5.1%만큼 정답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해당 구절동사에 대한 1, 2학년 학습자의 노출이 3학년 학습자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정답 외의 오답을 선택한 분포도를 살펴보면 ①번 175명(65.1%), ②번 57명(21.2%), ③번 37명(13.8%)으로 다수의 학습자들은 정답 외에 ①번 보기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6번과 8번 문항의 오답의 형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압도적인 비율의 학습자들이 구절동사 요소의 비분리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학습자들은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가지고 오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성별에 따른 정답률에 있어서는 남학생 22명(16.3%), 여학생 15명(11.2%)으로 남학생의 결과가 5.1%만큼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개의 문항과 대조적으로, 다음의 7번 문항은 구절동사가 대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이다. 문항의 내용과 결과를 나타낸 표는 아래와 같다.

7. 내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 I will call _____.

① you back ② back you ③ 모두 가능함

[표21] 7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학년			전체
			1	2	3	
7번	1	빈도	95	35	51	181
		답안별 %	52.5%	19.3%	28.2%	100.0%
		학년별 %	66.4%	62.5%	70.8%	66.8%
		전체 %	35.1%	12.9%	18.8%	66.8%
	2	빈도	43	16	14	73
		답안별 %	58.9%	21.9%	19.2%	100.0%
		학년별 %	30.1%	28.6%	19.4%	26.9%
		전체 %	15.9%	5.9%	5.2%	26.9%
	3	빈도	5	5	7	17
		답안별 %	29.4%	29.4%	41.2%	100.0%
		학년별 %	3.5%	8.9%	9.7%	6.3%
		전체 %	1.8%	1.8%	2.6%	6.3%
전체		빈도	143	56	72	271
		답안별 %	52.8%	20.7%	26.6%	100.0%
		학년별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2.8%	20.7%	26.6%	100.0%

[표22] 7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성별		전체
			남	여	
7번	1	빈도	89	92	181
		답안별 %	49.2%	50.8%	100.0%
		성별 %	65.4%	68.1%	66.8%
		전체 %	32.8%	33.9%	66.8%
	2	빈도	37	36	73
		답안별 %	50.7%	49.3%	100.0%
		성별 %	27.2%	26.7%	26.9%
		전체 %	13.7%	13.3%	26.9%
	3	빈도	10	7	17
		답안별 %	58.8%	41.2%	100.0%
		성별 %	7.4%	5.2%	6.3%
		전체 %	3.7%	2.6%	6.3%
전체		빈도	136	135	271
		답안별 %	50.2%	49.8%	100.0%
		성별 %	100.0%	100.0%	100.0%
		전체 %	50.2%	49.8%	100.0%

7번 문항은 앞서 살펴 본 6번 문항보다는 훨씬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학년 95명(66.4%), 2학년 35명(62.5%), 3학년 51명(70.8%)으로 학습자들은 명사 형태의 목적어보다는 대명사 형태의 목적어가 등장하는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2.7%로 여학생의 정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정답률을 보면 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포함하는 구절동사에 대한 문항에서는 20.0%를 채 넘지 못하는 반면에 위 문항의 전체 정답률은 66.8%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학습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에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오답의 분포도를 보면 ②번 보기에 73명(26.9%), ③번 보기에 17명(6.3%)이 응답하였는데, 이와 같이 ②번 보기에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일부 학습자들은 구절동사의 목적어가 명사일 때와 대명사일 때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 형태만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절동사의 목적어가 명사일 경우에는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 형태를 취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동사와 불변화사의 가운데로 위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절동사의 형태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취할 경우에 구절동사 요소의 결합 형태만을 알고 있는 것보다 분리 형태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습득하는 것이 더욱 자유로운 표현의 구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10번 문항은 동사와 불변화사 사이에 긴 부사구와 같은 요소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다. 이를 분석 결과와 함께 살펴보자.

10. 나는 난방기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켜다.
 ⇒ I turned _____.

① carefully and slowly on the heater
 ② on the heater carefully and slowly
 ③ 모두 가능함

[표23] 10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학년			전체
			1	2	3	
10번	1	빈도	39	14	24	77
		답안별 %	50.6%	18.2%	31.2%	100.0%
		학년별 %	27.7%	26.4%	33.3%	28.9%
		전체 %	14.7%	5.3%	9.0%	28.9%
	2	빈도	88	33	35	156
		답안별 %	56.4%	21.2%	22.4%	100.0%
		학년별 %	62.4%	62.3%	48.6%	58.6%
		전체 %	33.1%	12.4%	13.2%	58.6%
	3	빈도	14	6	13	33
		답안별 %	42.4%	18.2%	39.4%	100.0%
		학년별 %	9.9%	11.3%	18.1%	12.4%
		전체 %	5.3%	2.3%	4.9%	12.4%
전체		빈도	141	53	72	266
		답안별 %	53.0%	19.9%	27.1%	100.0%
		학년별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3.0%	19.9%	27.1%	100.0%

[표24] 10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성별		전체
			남	여	
10번	1	빈도	46	31	77
		답안별 %	59.7%	40.3%	100.0%
		성별 %	34.6%	23.3%	28.9%
		전체 %	17.3%	11.7%	28.9%
	2	빈도	68	88	156
		답안별 %	43.6%	56.4%	100.0%
		성별 %	51.1%	66.2%	58.6%
		전체 %	25.6%	33.1%	58.6%
	3	빈도	19	14	33
		답안별 %	57.6%	42.4%	100.0%
		성별 %	14.3%	10.5%	12.4%
		전체 %	7.1%	5.3%	12.4%
전체		빈도	133	133	266
		답안별 %	50.0%	50.0%	100.0%
		성별 %	100.0%	100.0%	100.0%
		전체 %	50.0%	50.0%	100.0%

위 문항에 대한 학년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1학년 88명(62.4%), 2학년 33명(62.3%), 3학년 35명(48.6%)으로 3학년의 정답률이 다소 낮은 가운데 나머지 학년은 유사한 이해도를 보였다. 정답 외의 응답 유형은 ①번 보기에 77명(28.9%), ③번 보기에 33명(12.4%)으로 나타나며 동사와 불변화사 사이에 부사구를 삽입하는 형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학습자들의 수가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성별에 따른 정답률에 있어서는 남학생 68명(51.1%), 여학생 88명(66.2%)으로 여학생의 정답률이 15.1%만큼 높게 나타나 평가지의 전체 문항 중에서 성별에 따른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11번 문항은 구절동사에서 굴절현상(e.g., 3인칭 단수 동사에서 (e)s, 과거에서 (e)d를 취하는 현상)은 동사부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평가지의 20개 전체 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문항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그녀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①	She always gets up early.
②	She always get ups early.

[표25] 11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학년			전체	
		1	2	3		
11번	1	빈도	135	49	67	251
		답안별 %	53.8%	19.5%	26.7%	100.0%
		학년별 %	94.4%	94.2%	91.8%	93.7%
		전체 %	50.4%	18.3%	25.0%	93.7%
	2	빈도	8	3	6	17
		답안별 %	47.1%	17.6%	35.3%	100.0%
		학년별 %	5.6%	5.8%	8.2%	6.3%
		전체 %	3.0%	1.1%	2.2%	6.3%
전체		빈도	143	52	73	268
		답안별 %	53.4%	19.4%	27.2%	100.0%
		학년별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3.4%	19.4%	27.2%	100.0%

[표26] 11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성별		전체
			남	여	
11번	1	빈도	122	129	251
		답안별 %	48.6%	51.4%	100.0%
		성별 %	91.7%	95.6%	93.7%
		전체 %	45.5%	48.1%	93.7%
	2	빈도	11	6	17
		답안별 %	64.7%	35.3%	100.0%
		성별 %	8.3%	4.4%	6.3%
		전체 %	4.1%	2.2%	6.3%
전체	빈도	133	135	268	
	답안별 %	49.6%	50.4%	100.0%	
	성별 %	100.0%	100.0%	100.0%	
	전체 %	49.6%	50.4%	100.0%	

위 문항에 대한 정답을 선택한 학습자의 수는 1학년 135명(94.4%), 2학년 49명(94.2%), 3학년 67명(91.8%)으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3인칭 주어에 대한 수 일치로 동사부에 (e)s를 붙이는 현상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문항에 포함된 구절동사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학습 자료를 통하여 많이 노출된 구절동사라는 점도 압도적인 정답률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외의 보기를 선택한 학습자의 수는 전체 학년을 통틀어 매우 소수이며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6.3%만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get up’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동사 단위로 보거나 또는 완전히 굳어진 표현으로 익숙하게 여기고 굴절이 동사의 후반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소수의 학습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 122명(91.7%), 여학생 129명(95.6%)으로 여학생의 정답률이 3.9%만큼 높게 나타났다.

이제 12번부터 16번까지의 문항은 단일동사와 구절동사가 포함된 각각의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주관식 문항으로, 단일동사에 불변화사를 더함으로써 일어나는 의미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각 문항은 2개의 하위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번째 하위문항은 첫 번째 하위문항에서 미리 언급한 단일동사에 특정한 불변화사를 첨가한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들은 주관식문항의 특성상 대체적으로 정답률이 낮고 정답 이외의 다양한 오답의 유형을 나타낸다.

또한 평가지의 다른 문항에는 응답하였으나 12번부터 16번까지의 주관식문항 전체에 대하여 아예 응답하지 않은 22명(1학년 10명, 2학년 8명, 3학년 4명)의 평가지는 이 유형의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여기서는 평가지 분석의 도입부분에서 실질적인 분석 자료로 삼은 272명의 평가지에서 이들 22명을 제외한 총 250명(1학년 133명, 2학년 48명, 3학년 69명)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 먼저 12번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2. ① She read the poem.

⇒

② She read out the poem.

⇒

위의 문항에서 단일동사인 read가 포함된 ①번 문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녀는 시를 읽었다.’라고 올바르게 해석한 반면에, 구절동사인 read out이 포함된 ②번 문항에서는 불변화사 out의 첨가로 인한 전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다양한 응답 유형을 나타냈다. 먼저 각 하위문항에 대하여 올바른 답안을 제시한 학습자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① ‘그녀는 시를 읽었다.’

- 무응답자 : 1학년 2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 정답률(%) : 1학년 126명(96.2), 2학년 47명(100), 3학년 66명
(97.1)

② ‘그녀는 시를 소리 내어 읽었다.’

- 무응답자 : 1학년 42명, 2학년 12명, 3학년 21명
- 정답률(%) : 1학년 24명(26.4), 2학년 11명(30.6), 3학년 9명
(18.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②번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정답 이외에 다양한 응답 유형을 나열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27] 12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그녀는 시를 읽었다	17	5	7	29
다 읽었다	14	2	10	26
지었다	6	6	3	15
읽어냈다	6	2	3	11
읽어나갔다, 읽어 내려갔다	5	-	5	10
해석했다, 판독했다	3	3	3	9
읽지 않았다	4	1	2	7
읽고 나갔다, 읽으러 나갔다	2	2	1	5
무응답	42	12	21	75

학습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오답의 유형은 불변화사의 첨가 여부와 관계없이 단일동사가 포함된 문장과 동일하게 우리말로 해석하

는 것이다. 즉 ‘읽었다’라고 동일하게 대답한 학습자의 수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out을 ‘모두, 전부, 다’의 의미로 추측하여 ‘다 읽었다’라고 대답한 학습자의 수가 뒤를 이었다. 또한 위의 표에 나열하지 않은 기타 유형으로는 ‘감상했다, 추측했다, 읽어주었다, 옮겨 적었다, 읽기를 멈추었다, 관대하게 읽었다, 시에 대해 읽었다, 이해했다, 들었다, 제출했다, 고쳤다, 전송했다’ 등의 매우 다양하지만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수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오답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비록 긴 지문이 아닌 단문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습자들은 의미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에만 의존하여 문장을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학습자 자신이 모르는 단일동사 또는 구절동사가 등장했을 때 그 의미를 추론하는 훈련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절동사를 지도할 때에 비록 학습자 자신이 모르는 어휘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단일동사 또는 불변화사의 의미를 추론하여 전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13번 문항을 살펴보자.

13. ① I drank the coffee.
 ⇒
 ② The coffee was very hot but I drank it up.
 ⇒

이 문항에서도 단일동사가 포함된 ①번 문항에 대하여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정답을 나타낸 반면에, ②번 문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대담으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단일동사 drink와 구절동사 drink up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두 개의 하위문항에 대하여 똑같이 ‘마셨다’라고 응답한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먼저 각 하위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비교해보자.

(14) ① ‘나는 커피를 마셨다.’

- 무응답자 :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 정답률(%) : 1학년 130명(100), 2학년 46명(100), 3학년 67명(98.5)

② ‘커피가 매우 뜨거웠지만 나는 그것을 마셔버렸다.’

- 무응답자 : 1학년 20명, 2학년 10명, 3학년 5명
- 정답률(%) : 1학년 43명(38.1), 2학년 16명(42.1), 3학년 38명(59.4)

구절동사가 포함된 ②번 보기에 있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정답률이 올라가는 가운데 특히 3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②번 문항에서 정답 이외에 또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표로 살펴보자.

[표28] 13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나는 그것을 마셨다	63	18	21	102
나는 그것을 쏟았다, 흘렸다	1	1	4	6
나는 그것을 마실 수 없었다	1	1	-	2
무응답	20	10	5	35

이 문항에 응답한 전체 학습자의 수(N=215)를 대상으로 할 때 약 절반(47.4%)에 가까운 수의 학습자들이 단일동사 drink와 동일한 의미인 ‘나는 그것을 마셨다’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불변화사 up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실수로 단일동사의 의미와 동일하게 대답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마도 불변화사 up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말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문항에서 ‘The coffee was very hot’이라는 의미적 단서와 특히 ‘but’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음에도,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그것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drink와 up을 하나씩 떼어놓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학습자들은 drink up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동사와 부사의 결합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서 굳이 up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drink의 의미만으로도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두 하위문항의 대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14번 문항을 살펴보자.

14. ① Tony put a box on the shelf.
 ⇒
 ② Tony put off doing his homework.
 ⇒

위 문항에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불변화사 off의 의미를 추측하여 다양한 응답 유형을 보였는데, 이에 앞서 각 하위문항에 대한 학년별 정답률을 알아보도록 한다.

(15) ① ‘Tony는 선반 위에 상자를 놓았다.’

- 무응답자 : 1학년 20명, 2학년 16명, 3학년 8명

- 정답률(%) : 1학년 103명(91.2), 2학년 25명(78.1), 3학년 58명
(95.1)

② ‘Tony는 그의 숙제하는 일을 미루었다.’

- 무응답자 : 1학년 33명, 2학년 15명, 3학년 12명

- 정답률(%) : 1학년 52명(52.0), 2학년 9명(27.3), 3학년 36명
(63.2)

①번 문항에서는 각 학년별로 비슷한 비율의 많은 학습자들이 올바른 대답을 이끌어낸 반면에, ②번 문항에서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다. 그렇다면 많은 학습자들이 어떤 대답으로 이끌렸는지 다음의 표를 통해 살펴보자.

[표29] 14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그의 숙제를 끝마쳤다	24	8	11	43
그의 숙제를 그만두었다	9	6	2	17
그의 숙제를 했다	3	4	5	12
무응답	33	15	12	6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답을 나타낸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off의 의미를 ‘종결 또는 포기’로 추측하여 ‘숙제를 끝마쳤다, 그만두었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전체 대상자들 중에서 12명의 학습자들은 off의 의미를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추측하여 ‘숙제를 했다’라고

대답한 점이다. 또한 기타 응답 유형으로는 ‘숙제를 내려놓았다, 하지 않았다, 도와주었다, 켜다’ 등이 있는데, 소수의 몇몇 학습자들은 ‘불을 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아마도 기준에 알고 있던 ‘turn off (끄다)’의 의미와 혼동하였거나 또는 off의 의미를 무조건 ‘불을 끄다’라는 의미로 제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끼워 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따라서 구절동사를 이루는 단일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에 있어 동일한 불변화사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반드시 구절동사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15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15. ① He decided to give money to the poor.
 ⇒
 ② He decided to give up smoking.
 ⇒

위의 ②번 문항에 포함된 구절동사의 경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지금까지 많이 접했던 어휘이므로 학년에 관계없이 12년부터 16년까지의 다른 문항에 비해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 ①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결심했다.’
- 무응답자 : 1학년 18명, 2학년 6명, 3학년 6명
 - 정답률(%) : 1학년 111명(96.5), 2학년 39명(92.9), 3학년 61명(96.8)

② ‘그는 흡연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 무응답자 : 1학년 24명, 2학년 6명, 3학년 7명

- 정답률(%) : 1학년 104명(95.4), 2학년 37명(88.1), 3학년 59명
(95.2)

위의 정답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이 문항에 대한 오답의 유형은 많지 않았다. ①번 문항의 경우 정답 이외에 ‘그는 돈을 벌어서 가난을 해결했다, 그는 가난했기에 돈을 벌 것을 결심했다, 그는 가난해서 돈을 받기로 결정되었다’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②번 문항에서는 구절동사 give up의 목적어인 smoking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그는 금연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대답한 소수의 학습자들이 있었다.

12번부터 16번까지의 유형에 있어 첫 번째 하위문항의 경우에는 단일동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하위문항의 경우에는 구절동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습자들이 정답 이외의 다양한 오답으로 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담고 있는 give up이 대표적인 구절동사라는 점과 1, 2, 3학년 전체 학습자들이 이미 중학교에서 학습했던 구절동사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매우 높은 정답률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구절동사를 학습자들에게 빈번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익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절동사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다음의 16번 문항은 단일동사와 구절동사의 의미 차이를 추론하는 유형의 마지막 문항이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① He looked the letter on the table.

⇒

② He looked over a letter.

⇒

이 문항의 첫 번째 하위문항은 매우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하위문항은 정답률이 낮고 극도로 다양한 유형의 응답을 보여준다. 이 문항에 대한 학년별 무응답자의 수와 정답률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 ① ‘그는 탁자 위에 있는 편지를 보았다.’

- 무응답자 : 1학년 19명, 2학년 9명, 3학년 8명

- 정답률(%) : 1학년 105명(92.1), 2학년 37명(94.9), 3학년 57명
(93.4)

② ‘그는 편지를 훑어보았다.’

- 무응답자 : 1학년 51명, 2학년 18명, 3학년 16명

- 정답률(%) : 1학년 35명(42.7), 2학년 13명(43.3), 3학년 33명
(62.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하위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전체 학년의 학습자들에 있어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두 번째 하위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낮은 가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간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은 ②번 문항에 대한 다양한 오답의 유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30] 16번 평가문항의 오답 유형과 학습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그는 편지를 보았다(쳐다보았다)	18	5	7	30
발견했다(찾았다)	5	2	6	13
올려다보았다	5	1	1	7
훑쳐보았다	4	1	1	6
보지 못했다	2	-	2	4
끝까지 보았다	1	1	1	3
너머를 보았다	1	2	-	3
내려다보았다	1	-	1	2
무응답	51	18	16	85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오답의 유형은 불변화사 over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일동사 look의 의미만을 파악하여 ‘보았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는 단일동사를 담고 있는 ①번 문항의 의미와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동일한 유형의 대답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인 유형은 ‘발견했다(찾았다)’인데, 이는 많은 학습자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구절동사인 look for와 혼동하였거나 또는 look의 문자적 의미만을 부각시킨 결과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또한 위의 표에 나열한 오답 유형 이외에도 ‘그는 편지를 지나쳤다, 넘겨주었다, 썼다, 주었다, 포장했다, 갖다놓았다, 보냈다, 기다렸다’ 등의 기타 소수 답변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12번부터 16번까지의 문항을 통해 구절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을 살펴보았는데, 각 문항에서 구절동사를 포함하는 두 번째 하위문항의 응답을 중심으로 학년별 정답률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31] 구절동사 의미과악에 관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분석 결과

문항번호	분석항목	학년			문항별
		1	2	3	
12번	빈도	24	11	9	44
	학년별 %	26.4	30.6	18.8	25.1
13번	빈도	43	16	38	97
	학년별 %	38.1	42.1	59.4	45.1
14번	빈도	52	9	36	97
	학년별 %	52.0	27.3	63.2	51.1
15번	빈도	104	37	59	200
	학년별 %	95.4	88.1	95.2	93.9
16번	빈도	35	13	33	81
	학년별 %	42.7	43.3	62.3	49.1
전체	학년별평균%	50.9	46.3	59.8	-

위의 표를 살펴보면 13, 14, 16번의 세 문항은 전체 학습자들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의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12번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고 15번 문항이 가장 높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른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동사에 비하여 12번 문항에서 묻고 있는 구절동사 read out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과 15번 문항에서 묻고 있는 구절동사 give up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12번 문항에서 read와 out의 결합 형태를 접하는 대신 또 다른 단일동사와 out의 결합 형태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불변화사 out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학습자 자신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단일동사+ out’의 의미를 적어놓은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15번 문항의 구절동사 give up은

중학교에서부터 대표적인 구절동사로서 매우 빈번하게 접했기 때문에 다른 문항에 비하여 압도적인 수의 학습자들이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총 5문항에 대한 학년별 평균 정답률을 살펴보면 2학년→1학년→3학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17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은 문장 속에 같은 의미를 지닌 구절동사와 단일동사가 함께 있을 때 둘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이 유형의 문항은 어떤 답지를 선택하더라도 정문이므로, 단순히 학습자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4개의 문항은 전체 평균점수를 계산하는 문항에서는 제외시키고 응답 유형을 통해 구절동사와 단일동사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는 자료로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 각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7. 그는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탔다.

⇒ He _____ the train to Busan.

① got on

② boarded

[표32] 17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학년			전체
			1	2	3	
17번	1	빈도	113	40	53	206
		답안별 %	54.9%	19.4%	25.7%	100.0%
		학년별 %	83.7%	83.3%	74.6%	81.1%
		전체 %	44.5%	15.7%	20.9%	81.1%
	2	빈도	22	8	18	48
		답안별 %	45.8%	16.7%	37.5%	100.0%
		학년별 %	16.3%	16.7%	25.4%	18.9%
		전체 %	8.7%	3.1%	7.1%	18.9%
전체	빈도	135	48	71	254	
	답안별 %	53.1%	18.9%	28.0%	100.0%	
	학년별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3.1%	18.9%	28.0%	100.0%	

[표33] 17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성별		전체
			남	여	
17번	1	빈도	97	109	206
		답안별 %	47.1%	52.9%	100.0%
		성별 %	77.6%	84.5%	81.1%
		전체 %	38.2%	42.9%	81.1%
	2	빈도	28	20	48
		답안별 %	58.3%	41.7%	100.0%
		성별 %	22.4%	15.5%	18.9%
		전체 %	11.0%	7.9%	18.9%
전체	빈도	125	129	254	
	답안별 %	49.2%	50.8%	100.0%	
	성별 %	100.0%	100.0%	100.0%	
	전체 %	49.2%	50.8%	100.0%	

이 문항에서 많은 학습자들은 단일동사 대신에 구절동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고 학년별로는 3학년의 구절동사 선택률이 다소 낮고 나머지 학년의 그것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구절동사 선택률이 6.9%만큼 높게 나타났다. 같은 유형의 18번 문항을 살펴보자.

18. 나는 계획을 포기했다.

⇒ I _____ my plan.

① abandoned

② gave up

[표34] 18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학년			전체
			1	2	3	
18번	1	빈도	16	8	12	36
		답안별 %	44.4%	22.2%	33.3%	100.0%
		학년별 %	11.7%	16.7%	16.7%	14.0%
		전체 %	6.2%	3.1%	4.7%	14.0%
	2	빈도	121	40	60	221
		답안별 %	54.8%	18.1%	27.1%	100.0%
		학년별 %	88.3%	83.3%	83.3%	86.0%
		전체 %	47.1%	15.6%	23.3%	86.0%
전체	빈도	137	48	72	257	
	답안별 %	53.3%	18.7%	28.0%	100.0%	
	학년별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3.3%	18.7%	28.0%	100.0%	

[표35] 18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성별		전체
			남	여	
18번	1	빈도	17	19	36
		답안별 %	47.2%	52.8%	100.0%
		성별 %	13.5%	14.5%	14.0%
		전체 %	6.6%	7.4%	14.0%
	2	빈도	109	112	221
		답안별 %	49.3%	50.7%	100.0%
		성별 %	86.5%	85.5%	86.0%
		전체 %	42.4%	43.6%	86.0%
전체	빈도	126	131	257	
	답안별 %	49.0%	51.0%	100.0%	
	성별 %	100.0%	100.0%	100.0%	
	전체 %	49.0%	51.0%	100.0%	

[표37] 19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성별		전체
			남	여	
19번	1	빈도	42	45	87
		답안별 %	48.3%	51.7%	100.0%
		성별 %	33.9%	34.4%	34.1%
		전체 %	16.5%	17.6%	34.1%
	2	빈도	82	86	168
		답안별 %	48.8%	51.2%	100.0%
		성별 %	66.1%	65.6%	65.9%
		전체 %	32.2%	33.7%	65.9%
전체	빈도	124	131	255	
	답안별 %	48.6%	51.4%	100.0%	
	성별 %	100.0%	100.0%	100.0%	
	전체 %	48.6%	51.4%	100.0%	

이 문항에서는 앞서 살펴 본 2개의 문항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의 학습자들이 구절동사를 선택하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로 볼 때 65.9%에 해당하는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이 구절동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많은 학습자들이 구절동사 look forward to에 많이 노출되어 왔지만 이에 뒤따라오는 형태로 동명사만이 가능하다고 학습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문항에 나타난 Jane's visit의 명사 형태가 어색하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문항에 해당하는 구절동사는 모든 학습자들이 이미 중학교 교과서에서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패턴의 가능성을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동명사가 뒤따르는 패턴만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2개의 불변화사가 등장하는 구절동사를 지도할 때에는 뒤따르는 형태의 패턴을 다양하게 알려주어 생산적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 자료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나머지 학년에 비해 2학년 학습자들의 구절동사 선택률이 약간 낮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절동사 선택률이 0.5%만큼의 미미한 차이를 보여 전체의 객관식 문항 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번 문항을 살펴보자.

20. 그 회의는 내일까지 연기되었다.

⇒ The meeting was _____ until the next day.

① put off

② postponed

[표38] 20번 평가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률 분석 결과

			학년			전체
			1	2	3	
20번	1	빈도	59	18	32	109
		답안별 %	54.1%	16.5%	29.4%	100.0%
		학년별 %	46.8%	37.5%	47.1%	45.0%
		전체 %	24.4%	7.4%	13.2%	45.0%
	2	빈도	67	30	36	133
		답안별 %	50.4%	22.6%	27.1%	100.0%
		학년별 %	53.2%	62.5%	52.9%	55.0%
		전체 %	27.7%	12.4%	14.9%	55.0%
전체	빈도	126	48	68	242	
	답안별 %	52.1%	19.8%	28.1%	100.0%	
	학년별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2.1%	19.8%	28.1%	100.0%	

[표39] 20번 평가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률 분석 결과

			성별		전체
			남	여	
20번	1	빈도	53	56	109
		답안별 %	48.6%	51.4%	100.0%
		성별 %	44.2%	45.9%	45.0%
		전체 %	21.9%	23.1%	45.0%
	2	빈도	67	66	133
		답안별 %	50.4%	49.6%	100.0%
		성별 %	55.8%	54.1%	55.0%
		전체 %	27.7%	27.3%	55.0%
전체	빈도	120	122	242	
	답안별 %	49.6%	50.4%	100.0%	
	성별 %	100.0%	100.0%	100.0%	
	전체 %	49.6%	50.4%	100.0%	

마지막 문항은 앞서 살펴 본 3개의 문항에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비율의 구절동사 선택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학년을 통틀어 45.0%의 학습자들이 구절동사를 선택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이 단일동사를 선택하였다.

앞서 살펴 본 3개의 같은 유형의 문항에서는 약간의 비율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구절동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준 반면, 이 문항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문항에 포함된 구절동사의 어휘가 학습자들에게 다소 친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①번 보기의 구절동사 put off는 앞서 살펴보았던 주관식 14번 문항에서 한번 다루었던 동일한 어휘이다. 그 문항에서 ‘연기했다’라는 올바른 의미를 적어낸 학습자들의 수는 1학년 52명(52.0), 2학년 9명(27.3), 3학년 36명(63.2)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정답률을 보였었다. 마찬가지로 여기의 20번 문항에서도 동일한 학습자들이 동일한 어휘에 대하여 접근한 것이므로 14번 문항과 유사하게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구절동사 put off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단일동사 postpone의 의미를 기준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절동사와 단일동사의 선호도를 묻는 4개의 문항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소 주관적인 의견을 포함하므로, 향후 교실환경에서 구절동사를 지도할 때에 학습자들의 선호도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선호도 관련 문항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표40] 구절동사와 단일동사의 선호도에 관한 문항 분석 결과

문항번호	동사 선택여부	빈도(정답률%)			전체빈도 (정답률%)
		1학년	2학년	3학년	
17번	구절동사 선택%	113(83.7)	40(83.3)	53(74.6)	206(81.1)
	단일동사 선택%	22(16.3)	8(16.7)	18(25.4)	48(18.9)
18번	구절동사 선택%	121(88.3)	40(83.3)	60(83.3)	221(86.0)
	단일동사 선택%	16(11.7)	8(16.7)	12(16.7)	36(14.0)
19번	구절동사 선택%	92(67.6)	29(60.4)	47(66.2)	168(65.9)
	단일동사 선택%	44(32.4)	19(39.6)	24(33.8)	87(34.1)
20번	구절동사 선택%	59(46.8)	18(37.5)	32(47.1)	109(45.0)
	단일동사 선택%	67(53.2)	30(62.5)	36(52.9)	133(55.0)
전체	학년별 평균%	71.6	66.1	67.8	68.5
		28.4	33.9	32.2	31.5

* 하단에 보이는 학년별 평균%는 문항별로 구절동사 또는 단일동사를 선택한 경우를 각각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 수치이다.

지금까지 구절동사와 단일동사가 함께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7번~20번 문항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많은 학습자들이 단일동사보다 구절동사를 더 친숙하게 여기고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학년 학습자들의 구절동사 선호도가 나머지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기본 어휘의 지식수준이 올라간다고 가정할 때 1학년 학습자들이 문항에 포함된 단일동사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구절동사를 선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구절동사를 이루고 있는 동사는 get, give, look, put 등의 비교적 쉬운 어휘로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인 것에 비해, 단일동사로 등장한 board, abandon, expect, postpone 등의 어휘는 전자보다 덜 노출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

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학교의 특성일 수도 있고 지역의 특성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지도하는 교사의 특성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에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학습자들로 하여금 몇몇 특정한 구절동사에 국한되지 않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매우 다양한 구절동사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절동사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맥락과 구절동사에 뒤따르는 형태의 다양한 패턴, 그리고 단일동사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욱 풍부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점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실질적인 읽기자료나 문화지도를 통해 다양한 구절동사를 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로써 평가지의 전체 20문항에 대한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구절동사의 추출 자료에 따른 학년별 정답률과 학습자들의 성별에 따른 정답률의 두 가지 사항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평가지 제작과 관련하여 앞서 [표4]에서 살펴본 구절동사의 추출 분포도에 따라, 구절동사의 추출 자료에 따른 학년별 정답률을 살펴봄으로써 특정 구절동사의 학습시기와 학습자들의 인지여부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구절동사의 추출 자료에 따른 학년별 정답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41] 구절동사의 추출 자료에 따른 학년별 정답률 분석 결과

	문항별 구절동사	문항 번호	빈도(정답률%)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전 학년	get on	17	113(83.7)	40(83.3)	53(74.6)
	get up	11	135(94.4)	49(94.2)	67(91.8)
	give up	15	104(95.4)	37(88.1)	59(95.2)
		18	121(88.3)	40(83.3)	60(83.3)
	look forward to	19	92(67.6)	29(60.4)	47(66.2)
	look up	8	20(14.3)	6(10.7)	20(27.8)
	turn on	6	17(11.9)	11(19.6)	21(28.8)
		10	88(62.4)	33(62.3)	35(48.6)
walk up	9	14(9.9)	3(5.6)	20(27.4)	
고등학교 1학년	escape from	3	23(18.1)	11(22.0)	6(8.5)
	read out	12	24(26.4)	11(30.6)	9(18.8)
	show up	1	110(76.9)	38(76.0)	45(63.4)
	take off	5	58(43.0)	21(43.8)	27(37.5)
고등학교 2학년	call back	7	95(66.4)	35(62.5)	51(70.8)
	put off	14	52(52.0)	9(27.3)	36(63.2)
		20	59(46.8)	18(37.5)	32(47.1)
send out	4	105(75.0)	37(77.1)	48(67.6)	
기타 (구절동사 관련서적)	call up	2	112(78.9)	43(86.0)	52(72.2)
	drink up	13	43(38.1)	16(42.1)	38(59.4)
	look over	16	35(42.7)	13(43.3)	33(62.3)

* 표의 음영부분은 각 문항별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학년을 표시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는 구절동사를 추출한 자료에 따라 중학교 전 학년,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기타서적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았다. 구

체적인 분석에 앞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본 평가지를 투입한 시점이 각 학년이 시작되는 4월초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해당 학년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을 3월 한 달 밖에 배우지 못한 상태이며 한 단계 낮은 학년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내용까지를 완전히 학습한 상태이므로 그때까지의 학습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출한 구절동사는 7개이며 중복하여 등장하는 구절동사를 포함하여 총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6개의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의 문항에서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구절동사의 선호도 측면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구절동사를 추출한 문항에서는 1학년 학습자들이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절동사의 형태에 관하여 묻는 6, 8, 9번의 경우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문항 모두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절동사의 형태적 측면에 있어서는 추출한 자료와 상관없이 3학년 학습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추출한 구절동사는 4개이며 각각 하나씩 포함하여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3개의 문항에서 2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개의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구절동사에 대하여 다음 학년인 2학년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평가지의 투입 시점이 각 학년이 시작되는 4월초임을 고려할 때 학습시점이 오래 지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세 번째로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추출한 구절동사는 3개이며 중복하여 등장하는 구절동사를 포함하여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3개의 문항에서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1개의 문항에서 2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의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구절동사에 대하여 다음 학년인 3학년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구절동사에 관한 대표적인 서적들에서 추출한 구절동사는 3개이며 각각 하나씩 포함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포함된 구절동사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의 어휘로서 각각의 동사부와 불변화사의 의미로부터 전체의 의미를 추론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 유형에서는 2학년과 3학년 학습자들이 1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냈다.

요약하면 중학교 과정에서 추출한 구절동사는 1학년 학습자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추출한 구절동사는 2학년 학습자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추출한 구절동사는 3학년 학습자들이, 그리고 기타서적에서 추출한 구절동사는 3학년 학습자들이 가장 잘 인지하고 있었다. 단, 예외적인 현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추출한 구절동사임에도 그것의 형태적 측면에 대해서는 3학년 학습자의 인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절동사의 형태적 특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가장 최근에 학습한 내용만을 잘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학년에 따른 구절동사의 누적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성별에 따른 정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사구의 삽입 가능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15.1%만큼의 큰 차이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에서는 일정한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즉 성별의 차이를 조

사한 객관식 10문항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5개의 문항은 남학생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다른 변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성별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변인의 통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이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어 온 구절동사에 대한 학년별 지식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은,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남녀공학의 교실현장에서 교사가 학습자들을 지도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틀을 마련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 학년의 학습자들에게 영어 구절 동사의 다양한 특징을 묻는 평가지를 투입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절 동사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평가지 문항의 유형별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지의 첫 5개 문항을 통해 현재 구절동사의 개념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학습자의 약 절반 정도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부터 구절동사를 학습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수치는 매우 큰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구절동사가 학습내용에 포함되기는 하나 효율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그 비중이 너무 적어 간과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지식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둘째, 객관식 6개의 문항을 통해 구절동사의 형태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구절동사의 목적어가 명사일 때 그 구성성분의 분리 형태와 결합 형태가 모두 쓰일 수 있는 용법을 이해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 반면에 구절동사의 굴절 형태와 부사구 삽입 여부에 대한 이해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에 따른 수준 차이에 있어 대체적으로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6개 전체의 문항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정답률을

보이진 않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6개 전체 문항에 대하여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단일동사와 구절동사가 포함된 각각의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주관식 5개의 문항을 통해 구절동사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불변화사의 의미로 뜻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 정답여부에 관계없이 학습자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불변화사의 한정된 의미로만 대답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많이 노출되었던 관용적 의미의 구절동사에 대한 정답률이 매우 높았다. 또한 이 유형의 문항에서는 3학년 학습자의 지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일동사와 구절동사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4개의 평가 문항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의외로 구절동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구절동사에 대한 선호와 더불어 단일동사 어휘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일동사를 회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지의 4개 문항만으로 구절동사의 선호도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평가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설정한 가설의 내용을 되짚어보자. 앞서 설정한 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1 :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영어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한국어에 없는 구절동사에 대하여 회피 현상을 보일 것이다.

가설2 :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각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구절동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투입되는 평가지의 결과에 있어서도 저학년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년 학습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위의 가설1에서 설정한 구절동사의 회피 현상에 대한 예상과는 달리, 학습자들은 오히려 단일동사보다 구절동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언어 간 전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반증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2에서 설정한 학년별 지식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지 전체 문항에 대한 학년별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 1학년 49.7점, 2학년 49.9점, 3학년 54.8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폭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각 문항별 분석을 살펴보면 학년 간 점수 차이가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반의 예상과는 달리 특정 문항에 있어 1학년 또는 2학년 학습자의 지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몇몇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전체 문항에 대한 학년별 평균 점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폭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문항별로 볼 때 학년 간 점수의 차이가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과 특히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평균 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으로 미루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뚜렷한 점수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구절동사의 학습이 학년별로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습량의 누적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구절동사 이해 정도와 학습 실태에 관한 다양한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좀 더 효율적인 구절동사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수집의 분석에 따르면 교사는 구절동사를 지도하는 데 있어 학습자들의 학년에 따라 큰 차이를 두고 별개의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학년을 불문하고 이해 정도가 낮게 나타난 구절동사의 기본적인 개념 및 동사와 불변화사의 분리 가능성과 같은 형태적인 특징을 보다 강조하여 지도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도 이미 배운 내용의 복습과 아울러 다음 내용의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반복에 따른 학습량의 누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구절동사는 숙어이므로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는 식의 지도가 아니라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인지적 관점에서 구절동사에 주로 쓰이는 일반 동사와 불변화사의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의미 설명만을 하기 보다는 새로운 어휘를 접하더라도 학습자 스스로 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절동사의 원형의미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셋째, 교실환경에서 배우는 교과서만으로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절동사가 많이 쓰이는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로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구절동사의 학습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앞서 평가지 분석결과에서도 보았듯이 학습자들은 교과서 지문 속에 등장한 단 한 가지의 패턴만을 암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나의 구절동사라 하더라도 다양한 문맥과 패턴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 교과서보다 흥미를 끌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거리 또는 스포츠 관련기사와 같은 실질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구절동사의 표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구어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일동사보다 구절동사가

더욱 풍부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화용적인 측면에서 구절동사를 사용해야 비격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사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절동사의 의사소통적 기능에 대한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소통적 문맥에 적합한 구절동사의 표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절동사를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보다 유사한 의미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구절동사와 함께 지도하여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별 문맥에 더 어울리는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절동사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학교의 특성으로 인한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전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학교 단위 및 각 지역별 교육청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영어의 기본 어휘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에 따른 구절동사의 기본 어휘 목록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구절동사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덕기, 배종언, 안동환, 최종욱, 안병규, 오준일, Dahland, A., 강대철, 신인숙, 김서령. (2004).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금성출판사.
- 김덕기, 배종언, 안동환, 최종욱, 안병규, 오준일, Dahland, A., 강대철, 신인숙, 김서령. (2004).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금성출판사.
- 김충배, 최인철, 전병쾌, 강용구, 유제분, 최현순. (2003).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서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배두본, 박성수, 김정렬, 김준식, 이동주, Carl Dusthimer. (2003).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서울: (주)교학사.
- 이맹성, 황적륜, 김영석, 김길중, 양현권, 김진완, 송민영. (2004).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지학사.
- 이맹성, 황적륜, 김영석, 김길중, 양현권, 김진완, 송민영. (2004).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지학사.
- 이병민, 박기화, Ryou, K. H., 한정근, 조정순. (2004).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천재교육.
- 이병민, 박기화, Ryou, K. H., 한정근, 조정순. (2004).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천재교육.
- 이병민, 박기화, 한정근, 정정혜, Stephen P. van Vlack. (2003).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서울: (주)천재교육.

- 이성호, 이기정, 이다미, 홍민표, 박인순, 홍영희. (2003).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서울: (주)지학사.
- 장영희, 김진철, 김성철, 정소영, 이경태, John Eric Feldt. (2003).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서울: (주)두산동아.
- 김자영. (2006). *영어 구동사의 이해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자희. (2003). *7차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인지언어학적 구동사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재성. (2004). *알고 보면 쉬운 영어 구절동사*. 한국문화사.
- 이기동. (2004). *영어 구절동사 : 의미와 용법*. 교문사.
- 이상규. (2000). *영어 구절동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진. (2002). *고등학교 학습자의 영어 구동사 이해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rber, C. (1964). *Linguistic Change in Present-day English, Alabama Linguistic and Philological Series, 9*. AL: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Celce-Murcia, M. and D. Larsen-Freeman.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Heinle & Heinle Publishers.
- Courtney, R. (1983).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 London: Longman Group Ltd.
- Cowie, A. P. and Mackin, R. (1993). *Oxford Dictionary of Phrasal Verbs*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gut, M. and Laufer, B. (1985). Avoidance of Phrasal Verbs - A Case for Contrastive Analysi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7, 73-80.
- Feare, R. (1980). *Practice with Idiom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B. (1976). *The Verb-particle Combination in English*. New York: Academic Press.
- Lakoff, G. and Johnson, M. (1981).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onald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 :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indner, S. (1983). *A Lexico-Semantic Analysis of English Verb-Particle Constructions with UP and OUT*. Doctoral dissertation.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 You, You-soon. (1999). Avoidance Phenomena of Phrasal Verb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English Teaching*, 54(3), 135-155.

A B S T R A C T

A Study on the Cognition of English Phrasal Verb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Lee, Woo-Yeo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ung, So-Woo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meaning of phrasal verbs in English could not be predicted from their components, verb and particle. Consequently, teaching and learning of phrasal verbs have focused on the mechanical memorization without understanding semantic relations among the components. This has caused students to lose interest in phrasal verbs. Since the introduction of Langacker's cognitive grammar,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meaning of phrasal verbs can be predicted from their components, verb and partic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undamental notion of phrasal verbs and to se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nd the actual condition of learning according to high school students of all grades in Seoul, Korea. Based on them, it is also to present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phrasal verbs. This study consists of 4 chapters:

In Chapter 1, the need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examined. In Chapter 2, cognitive grammar and phrasal verbs as a background of this study and advanced studies related to this topic are examined. In Chapter 3, two hypotheses are built up and a set of test papers distributed to 324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was analysed. Finally, Chapter 4 shows the conclusions with a set of test papers and some suggestions about more effective ways to teach phrasal verb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is showed that about half of learners didn't understand the notion of phrasal verbs. Second, the understanding of the syntactic features of phrasal verbs was generally low. Third, in questions inferring the meaning of phrasal verbs, learners tend to guess the meaning of phrasal verb with only its verb, excluding the meaning of the particle. That is, they didn't understand the way words are combined to form phrasal verbs. Finally, in questions about the preference between one-word vocabulary and phrasal verbs, more learners unexpectedly have a preference for phrasal verb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it is possible to

suggest more effective ways to teach phrasal verbs. These suggestions are given below.

First, it seems necessary for teachers to instruct the syntactic features of phrasal verbs such as the fundamental notion and the separability of particles. Second, it seems very important that phrasal verbs should be presented 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grammar rather than the traditional method, meaningless memorization. Third, it seems necessary to complement teaching methods with original and authentic materials that reflect active use of phrasal verbs as well as school English textbooks. Finally, it seems essential that teachers make learners use phrasal verbs properly in various communicating situations in order to raise their communication skills, which are regarded as most important according to the 7th curriculum.

부 록

♣ 구절동사 평가문항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영어 구절동사(Phrasal Verb)의 학습에 대한 인식과 학습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신 자료는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함을 약속드립니다. 평가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별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___고등학교 __학년 __반 성별 (남 / 여)

* 다음 문장에서 구절동사 부분에 밑줄을 치세요.

1. What time did you show up?
2. He called up his mother.
3. Boys and girls often desire to escape from their parents.
4. They sent out an invitation to us.
5. Take your hat off.

* 다음 한글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 빈 칸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6. 나는 컴퓨터를 켜다.

⇒ I turned _____.

- ① the computer on ② on the computer ③ 모두 가능함

7. 내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 I will call _____.

- ① you back ② back you ③ 모두 가능함

8. 그들은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았다.

⇒ They looked _____ in a dictionary.

- ① up the word ② the word up ③ 모두 가능함

9. 그들은 거리를 걸었다.

⇒ They walked _____.

- ① up the street ② the street up ③ 모두 가능함

10. 나는 난방기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켜다.

⇒ I turned _____.

- ① carefully and slowly on the heater
② on the heater carefully and slowly
③ 모두 가능함

* 다음 한글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 옳은 문장을 고르세요.

11. 그녀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① She always gets up early.

② She always get ups early.

* 다음 영어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유의하여 한글로 옮기시오.

12. ① She read the poem.

⇒

② She read out the poem.

⇒

13. ① I drank the coffee.

⇒

② The coffee was very hot but I drank it up.

⇒

14. ① Tony put a box on the shelf.

⇒

② Tony put off doing his homework.

⇒

15. ① He decided to give money to the poor.

⇒

② He decided to give up smoking.

⇒

